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

시화 MTV 단지는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벨트의 형성 촉진,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의 조성과 계획적 입지공간을 제공하여 개발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변 단지와 상호보완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와 시흥시 9,256,000㎡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공유수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화 MTV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 시화호 수질개선을 지속적인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와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의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태단지를 조성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으로는 시화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화 MTV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지역적으로는 안산시

지역의 개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지역의 당사자인 안산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신규 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도로의 확포장 공사와 구조 변경 사업으로 인하여 안산시 스마트 허브 지역내 교통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개발지역 인근 지역 업체와 기반시설 이용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한국수자원 공사는 시화 MTV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흙관, PE 관, 가로등, 전선, 레미콘, 콘크리트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이용과 안산시에 지역을 둔 667개의 전문건설 업체와, 5,75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 이익을 안산시 지역 업체에 환원시켜 줌으로써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안산시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보전과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 지역 생산품,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를 우선 선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2. 7. 1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